

제 목 : 내게 날개를 달아준 새일센터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애벌레와도 같았던 삶>

취업난과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 이슈다. 나만큼은 경력단절을 피해갈 줄 알았지만 다른 평범한 아줌마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경력단절은 시나브로 찾아왔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온실의 화초 속 애벌레처럼 좁은 자리를 꿈틀거릴 뿐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했다. 드라마 속 멋진 커리어우먼을 동경하며 나는 언제쯤 저들처럼 우아하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름 젊다고 생각했지만 30대 중반을 앞둔 나이에 나를 받아주는 질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취업을 위해 틈틈이 학점은행제, 직업훈련교육,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취업시장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사회적 이슈와 경기침체 때문에 제대로 된 사무직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영원히 풀잎 위의 애벌레처럼 조그마한 세계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살아야 하나 보다.” 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가 주최하는 <경력단절 여성 IP-R&D 특허전문가 양성과정>이었다. 2021년 처음 이 현수막을 보았을 때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어서 포기했었고, 2022년 둘째를 낳고 나서 똑같은 현수막을 다시 보고 이건 운명이다! 하며 과감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맙게도 남편은 내 뜻을 지지해주었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바로 5개월 된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했다. 갓난아기를 코로나 시국에 맡기는 것을 주변에서 반대하기도 했고 몇몇은 직업훈련을 듣는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내게 걱정스러운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듣지 않는다면 내 삶은 영원히 같은 곳에 머무를 것만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했다.

경력단절 아줌마가 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죽이 되 든, 밥이 되 든 취업은 일단 이 과정을 다 듣고 나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겠다 싶었다. 내가 새롭고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온갖 걱정 때문에 날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수업을 들으러 왕복 2시간 운전을 해야 하므로, 최소한 운전 실력이라도 향상되니 밀려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3개월 동안 <IP-R&D 특허 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IP-R&D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안에서 온몸을 분해한 뒤 새로 몸을 만든다. 새일센터에서 특허전문가 과정을 듣는 동안 나는 자신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내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될 거니까.

수업을 처음 들을 때 용어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선생님들께서 쉽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매일 밤 배운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공부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들에게 요약본 만든다고 홍보를 했고, 한번 말을 뱉으니 책임감이 생겨서 끝까지 했다. 그 결과 3개월에 걸쳐 요약 정리한 내용을 동기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특허개론,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신규 IP 창출 등 특허출원과 관련한 이론들을 배우고 이론을 실습해보면서 특허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다졌다.

다음으로 IP-R&D 조별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한층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조장으로서 책임감뿐만 아니라 핵심특허 전략을 세우고 IP 창출과 관련해 조원들이 각자 분석해온 과제 흐름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면서 논리력을 기르고 어떤 일에 대해 전체를 바라보는 역량이 생겼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며 어느새 엑셀 고수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과 매일 수업 끝나고 1~2시간씩 남아 함께 발표준비를 하며 동료애를 다지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도 배웠다. 대부분 업무는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외협력역량은 집에서 살림하느라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는 내게 부족한 부분이었다.

밤새 경진대회를 준비하며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은 위와 같이 끊임없이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이것이 다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망의 경진대회 발표 날, 우리 조는 준비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었고 발표 직후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결과와 상관없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과제를 우리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일궈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장롱면허가 운전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다짐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값진 경험들은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번데기 속의 애벌레는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액화되어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오직 번데기 껍질만 애벌레를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할 뿐이다. 나도 애벌레처럼 내적 성장과 함께 마음이 매우 약해졌다. 먼저, 돌도 안 된 둘째가 통잠을 자지 않아서 수면부족으로 체력의 한계가 왔다. 그리고 현장실습 동안 특히 분야에서 문과생 출신의 취업 어려움을 체감하며 ‘이번에도 내 노력은 헛되이 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다행히도 마음속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일센터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시며 내 마음이 딴 곳으로 세지 않도록 마치 번데기 껍질처럼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셨다. 그러한 든든한 방패막이 있었기에 종종 눈물 흘리며 운전대를 잡는 날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나비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데 아이들이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취업은 물 건너가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과출신이 특허사무소나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들어갈 자리가 많지는 않았다. 약간 포기하는 찰나 새일센터의 알선을 통해 특허법인과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다. 면접 전날에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보육문제로 인해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새일센터에서 대표님께 미리 단축 근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 조율이 잘 되어 채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부족하겠지만, 아직은 어렵겠지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입은 업무가 숙달되어 회사에 이바지할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냉정한 현실에서는 개인의 능동적인 노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나비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다. 애벌레가 언제 나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다만 그 시기를 앞당기려면 애벌레 시절에 부지런히 영양분을 흡수해야 한다. 나는 전업주부로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 나는 틈틈이 자기계발을 하며 내실을 다졌다. 다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평소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실천에 옮겨 내재가치를 채워나가야 한다.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 아이를 맡길 보육 시설, 그리고 새일센터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기회를 잡는 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맡겨진 아이들에게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성과를 내리라 매일 다짐했다. 드디어 나도 나비가 되어 집 울타리 밖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취업 이후 가장 먼저 내 변화를 느낀 것은 남편이다. 취업 전에는 사회적 교류도 부족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에만 쏟느라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자녀와 관련된 주제밖에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취업 후에는 나도 내 업무가 생기니 남편과 동등한 주제로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며 이전보다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 힘들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아직은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커리어에 쏟으니 아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좀 더 너그럽게 대하다 보니 아이들과 실랑이하는 시간이 줄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도 나만의 일이 생기니까 일하면서 자아 효능감도 높아지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몸은 힘들지라도 정신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새일센터로 오세요! 우리 모두 저마다 멋진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아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터로 복귀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뛰든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할 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실을 뽑아 번데기를 만드는 단순한 일로 시작한다. 이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인생은 앞으로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번데기를 뚫고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는 나비처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날개를 달자 경력단절된 여성들이여!

일터로 가면, 더 넓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센터와 함께 취업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터널과 같은 암흑 속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